

05
2025

재외동포의



이달의 재외동포 _ 쿠바 독립운동가 임천택

특집 _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이슈 앤 화제 _ 이상덕 청장, 프랑스 입양동포 · 한글학교 교사 격려
재외동포청장 “파독근로자 헌신, 조국 근대화의 초석”

기획 _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 ‘눈물의 애니깽’에서 이젠 ‘비바 꼬레아’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최대 규모 행사인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지난 4월 2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회 기간 동안 6억6000만달러(한화 약 9900억원)에 이르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4990만달러(한화 약 740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2002년 시작해 올해 23번째를 맞는 이 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에게 모국과의 연결 고리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애틀랜타 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서 나아가 대한민국과 동포 경제인들이 한민족 경제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기관장으로서 이번 대회의 3가지 중요한 장면을 꼽아보고자 한다.

이번 대회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17일 개최된 개회식에서 올해를 '한상경제권 구축' 원년으로 선포했다는 점이다. 한상경제권은 동포 기업인과 국내기업인을 묶어 생산·소비·투자·인력 이동·공급망 구축이 촉진되도록 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인데, 작년에도 대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시한 개념이다. 최근 강대국 간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민족 경제공동체'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상경제권 원년 선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시의적절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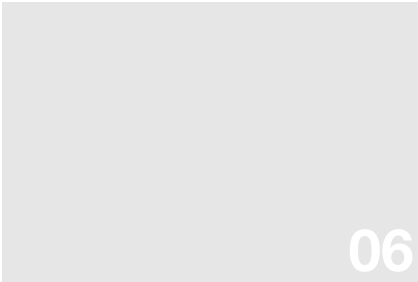
두 번째로, 이번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K-푸드, K-뷰티, K-바이오 등 한류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주목 받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시회에 39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해외 바이어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했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총 86건 1억5000만달러 규모(한화 약 2250억원)의 업무협약(MOU) 체결 성과도 거뒀다. 한류의 힘이 더해진 한상의 힘이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최대 대미 투자처 중 한 곳이자 한미 양국 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조지아주에서 열린 것도 주목할만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긴요한 시점에서 G2G포럼 등을 통해 양국의 지자체 및 주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불확실한 국제 통상 환경을 헤쳐 나가고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2년부터 시작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더 이상 단순한 교류 행사가 아니다.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며,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상경제권을 구축하고 전 세계 한인경제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모든 한상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06



12



20

- 02 창을 열며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 04 이달의 재외동포 쿠바 독립운동가 임천택
- 06 특집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 10 이슈 앤 화제 이상덕 청장, 프랑스 입양동포·한글학교 교사 격려
재외동포청장 "파독근로자 헌신, 조국 근대화의 초석"
- 14 기획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
'눈물의 애니깁'에서 이젠 '비바 꼬레아'
- 16 정책 돋보기 이상덕 청장 "입양동포 국내 정착지원은 국가의 책무"
- 18 초대석 ❶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총회장
- 20 초대석 ❷ 김점배 글로벌한상드림 제3대 이사장
- 22 OKA 뉴스 재외동포청장, 베트남서 동포정책 강연...한인 소상공인도 격려 외
- 25 기고문 뿌리를 향한 귀환, 문화를 통한 미래...동포 연대의 길
채예진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KGN) 이사장
- 26 재외동포청 공지 2025년 제1기 한국어 특별강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쿠바 독립운동가 임천택

독립자금 모금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민족교육에도 앞장
쿠바 한인 이민사 및 독립운동사 출간...건국훈장 애국장 수훈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025년 5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쿠바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선구자 임천택(1903~1985) 지사를 선정했다.

임천택 지사는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1세대로, 대한민국민회 쿠바 지방회 조직, 독립운동 자금 모금, 청년 민족 교육 및 언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1903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임 지사는 1905년 어머니를 따라 멕시코 유카탄으로 이주했다. 이후 멕시코 혁명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1921년, 300여 명의 한인과 함께 쿠바로 재이주해 쿠바 마탄사스 지역에 정착했다.

쿠바 주재 일본 영사관이 한인들에게 일본인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요구하자 임 지사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민회 마탄사스지방회'를 설립했다. 서기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총무, 회장, 고문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쿠바 현지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임천택 지사

보훈부, 2024년 10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1941년 일본군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자 한인들의 광복 의지와 일본인들과의 차별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쿠바 내 3개 국민회 지방회를 대표하는 11인 중 한 명으로 '재규한족연합외교회' 결성을 주도했다. 2년 뒤에는 이를 발전시킨 '재규한족단'을 출범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에 나섰다.

임 지사는 김구 선생으로부터 임시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쿠바 한인들을 규합해 식구 수대로 쌀 한 숟가락씩을 모아 자금을 마련해 독립운동 자금도 지원했다.

1937년부터 1944년까지 1천289달러의 기금을 모아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에 납부했으며, 246달러를 모아 쿠바

아바나 소재 중국 은행을 통해 충칭(重慶) 임시정부 김구 선생에게 송금했다. 일주일에 겨우 2~3달러 남짓이었던 당시 한인들의 임금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1930년 한인 100여 명과 함께 지지대회를 열고 특별후원금 100달러를 모금해 조국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김구 선생은 이러한 쿠바 동포들의 독립자금 지원에 대해 "미국 본토와 하와이, 멕시코, 쿠바의 1만여 명의 동포는 비록 대다수가 노동자였지만 애국심은 강렬했다"고 백범일지에 기록했다.

또한 그는 민족 교육과 언론 활동을 통해 쿠바 한인 청년들의 민족 정체성 확립과 쿠바 한인 이민사·독립운동사 기록에 매진했다.

1925년 쿠바 최초의 한인학교인 '민성국어학교' 교사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교장직을 맡아 수년간 한글, 역사, 문화를 가르치며 민족 교육과 차세대 한인의 정체성 함양에 힘썼다.

1930년 재정난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민성국어학교'를 재건하고, 야학교 '청년학원'을 설립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독서, 강연, 토론 교육을 실시하며 독립운동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 양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1930년대부터 10여년간 '신한민보' 쿠바 통신원으로 활동한 그는 쿠바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상황을 미국과 한국에 알렸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공보' 등의 잡지를 쿠바 한인사회에 배포해 조국 독립을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을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또한 1941년부터 '신한민보'에 '쿠바 재류동포의 이주 20년 역사'를 연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1954년 '쿠바이민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쿠바 한인 이민사와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기록물로, 오늘날 해외 한인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임천택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97년 우리 정부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며, 국가보훈부는 2024년 10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해 그의 뜻을 기렸다.

이상덕 청장은 "임천택 지사는 지구 반대편에서 조국 독립의 희망을 꽃피운 애국자였다"며 "일평생에 걸친 조국에 대한 헌신을 조명해 그의 숭고한 업적을 후대가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임 지사 손녀, 지난해 동포청 초청 모국 방문

동포청은 지난해 2월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를 기념해 작년 12월 임천택 지사의 손녀 노라 임 알론소를 비롯한 쿠바 한인 3~4세를 국내로 초청해 선조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돌아보는 등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임천택 지사의 손녀 노라 림 알론소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회고 했다.

"대한민국을 할아버지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 사실 잘 몰랐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어렵게 살았다는 이미지만 있는데 와서 보니 많이 발전돼 있어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스페인 출신이어서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부터 한국 음식 요리를 많이 가르쳐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



2024년 12월 재외동포청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할아버지 임천택 지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손녀 노라 임 알론소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쿠바에서 한국어학교도 설립해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스페인어도 열심히 배워 함께 이주해 온 한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인으로서 뿌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자녀 교육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죠. 그래서 큰 아버지 헤로니모 임(한국명 임은조)은 쿠바 정부 산업식량부 차관과 한인회장을 지냈고, 생존해 있는 고모 마르타 임(86)은 '쿠바의 한인들'이라는 책도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펴냈습니다."

임 지사 증손자 대한민국 국적 취득

임천택 지사의 증손자로 충남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영 임 펜잔 안토니오(28)씨는 지난 8월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 3월 첫 번째로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이끈 재일동포 기업인 고 김평진(1926~2007)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에 이어 4월 재미동포 기부왕 고 홍명기(1934~2021) 전 M&L Hong 재단 이사장을 선정한 바 있다. 









이상덕 청장, 프랑스 입양동포 · 한글학교 교사 격려

프랑스 주요 동포단체장과도 소통 “정체성 회복 노력,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

재외동포청은 이상덕 청장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입양동포 및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입양동포가 가장 많은 나라다.

지난 16일 파리 소재 소피텔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프랑스 입양동포 단체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한국의 뿌리협회’(회장 이재동)와 코리아낭트협회(회장 전현주) 회원 및 프랑스 주류사회에 진출한 입양동포 50여명이 함께했다.

이상덕 청장은 인사말에서 “입양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성공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인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하다”며 모국 정부도 진심을 다해 입양동포들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김민철 동포청 교류협력국장이 입양동포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및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참석자들과의 소통도 이어졌다.

이재동 회장은 간담회를 마련해 준 동포청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동포청의 지원을 받아 오는 9월 협회 창립 39주년 행사를 프랑스 전역을 아우르는 규모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주 회장은 “입양인들은 한국이 뿌리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거주국에 더 알리려고 노력한다”며 현지에서의 한국 문화·예술 홍보, 입양동포를 위한 모임 개최 등 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입양동포들은 2~3세대를 위한 모국 초청 연수 및 장학제도 신설, 2세의 한국 국적 유지 필요성 등을 동포청에 건의했다.

이 청장은 같은 날 오후에는 유럽한글학교협의회(회장 이장석) 교사연수에 참석, 유럽 전역의 18개국 64개 한글학교에서 참가한 현장 교사 150여명과



이상덕 청장이 16일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에 참석, 유럽 전역의 18개국 64개 한글학교에서 참가한 현장 교사 150여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덕 동포청장이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해외 입양동포 첫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당에 모인 교사들은 이 청장의 방문에 박수로 환호하며, 국외에서 한글 교육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냈다.

교사 연수 '뿌리를 담아 세계로' 주제로 열려

이번 교사연수는 재외동포청의 후원과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세계한인무역협회, 재불한인여성회, 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 영·프·독 3국 교육원 등 여러 기관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올해 연수는 '뿌리를 담아 세계로'라는 주제로,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최신 교육 정보와 전문 강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택수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AI 플랫폼과 소버린 AI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어 수업'을 주제로, 한정희 백석대 교수는 '한국어 문법의 특징과 교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분과토론에서는 유치·초등반, 중·고등반, 성인·다문화반으로 나뉘어 각 반의 교육 사례와 고민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교수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이민호 주무관의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소개와 함께 향후 유럽권 한글학교와의 협업 방안 제시도 있었다.

교사들은 연수 중 언어교육법, 문화 체험수업 사례, 차세대 대상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며 쌓은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돼, 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참가자들은 파리 시내 역사·문화 탐방과 교사 간 친교 프로그램, 다문화 동포 자녀 교육 방향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이 청장 "언어 교육은 한인의 뿌리를 찾는 첫걸음"

이상덕 청장은 축사를 통해 "언어 교육은 한인의 뿌리를 찾는 첫걸음"이

라며, "AI 시대에 한글학교 교육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연수가 그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승현 주프랑스대사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한 창의적 교육 방법과 세계 시민의식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교사들의 헌신 덕분에 유럽 동포 자녀들이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 자랑스러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장석 유럽한글학교협회회장은 개회사에서 "AI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 속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며, "한글학교는 언어 교육을 넘어 민족의 얼과 정신, 문화와 역사를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에게 "가르치며 배우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자세로 이번 연수를 통해 깊은 배움과 기쁨을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지난 15일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주요 동포단체 대표 30여명과 간담회에서 현지 동포사회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세대 간 소통 강화, 차세대 동포의 적극적인 활동 등을 당부했다.

동포단체 대표들은 해외 거주 동포에 대한 국내 부정적 인식 개선, 복수국적 연령 하향, 내년도 한불수교 140주년 준비를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동포청은 전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17일 독일 에센 소재 파독광부기념회관을 방문해 파독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했다.

재외동포청장 “파독근로자 헌신, 조국 근대화의 초석”

독일 에센 파독광부기념관 방문...

입양인협회 · 한인회와 동포청장 주재 첫 간담회 개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7일부터 이틀간 독일 에센과 베를린을 방문해 파독 근로자와 독일 동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동포청장이 현지를 방문해 동포들과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청장은 17일 에센의 파독광부기념회관을 찾아 전시된 파독 근로의 역사적 기록, 소장품 등을 둘러보며 그들의 헌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회관은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공간이자 재독 한인사회의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평가된다.

파독광부기념회관은 2009년 12월에 개관했으며 1960~70년대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

이 사용했던 작업복, 헬멧, 사진, 노동계약서 등 다양한 유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그들의 삶과 노고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지서 동포청장 주재 첫 동포간담회

이어 파독 근로자 출신 동포와 에센 지역 동포 50여 명을 기념회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됐다”며 “조국이 어려웠던 시절 독일에서 땀 흘리며 큰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이 재독 동포사회의 중심 역할을 맡아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또 “파독 근로자들을 포함한 동포들의 모국 기여가 잊어지지 않고 그 역사적 공헌이 올바르게 기록되고 전해져 우리 국민들이 동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정명규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청장의 이번 방문은 재독동포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모국 정부의 관심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라며 “재독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청장, 파독근로자 등과 소통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동포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그간의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냈다. 이들은 “국적 회복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 “고령 동포가 많아 복지 지원이 절실하다”, “보조금 신청과 결과보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국적회복 절차 간소화, 파독근로자 복지확대, 동포 대상 국내 의료보험 제도 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및 결과보고서 제출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이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이라며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독입양인협회(KAD) 관계자도 만나

이상덕 청장은 18일 같은 장소에서 ‘입양인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행사’를 준비중인 한국 독일 입양인협회(KAD) 임원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친생부모 찾기 등에 있어 입양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모국 정부가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입양동포들

의 고충에 공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입양동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양동포 전담창구 개설과 세계 입양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포청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청장은 같은 날 베를린으로 이동해 주독일대사관에서 베를린 동포들 40여 명과 소통을 이어갔다.

베를린 동포들은 청소년 모국연수 지원 절차 개선, 동포단체 지원 확대, 복수 국적 취득 시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차세대 단체와 전문직 종사자 대표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업 플랫폼 구축 사업 및 독일 한인의사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 청장 “어려움 해결위해 노력할 것”

이 청장은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동포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열린 동포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독일 동포사회는 현재 약 4만 5천 명. 이 중 다수가 파독 1세대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국을 떠나 생계를 위해 떠났던 그들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한국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을 다시 조명하고 있는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모국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 있다. 재외동포청의 이번 현지 행보는 그들을 향한 국가의 첫 인사이자, 새로운 동행의 출발점이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어 동포사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눈물의 애니깽’에서 이젠 ‘비바 꼬레아’

1905년 인천서 출항해 한 달여 만에 유카탄주 도착...1천31명 첫발

올해는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해이다. 1905년 5월 멕시코에 도착한 한인 1천31명은 에네켄(애니깽) 농장에서 4년 안팎의 시간을 보낸 뒤 뿔뿔이 흩어져 현지에 뿌리를 내렸다. 현재 멕시코에는 3만여명의 후손이 살고 있다.

120년 전 한국인에게 멕시코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부족한 먹거리로 곤궁에 빠졌던 선조들의 눈에 ‘묵서가’(墨西哥·멕시코를 뜻하는 한자어) 근로자를 모집하는 언론 광고는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구로 채워졌다.

‘4년 계약. 주택 무료 임대. 높은 임금’이라는 조건의 초대장을 손에 쥔 1천33명은 그렇게 멕시코 첫 한인 이주민으로서 1905년 4월 4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영국 상선 일포드호에 몸을 실었다.

일본 요코하마를 거친 일포드호는 출항 한 달여 뒤 멕시코 오악사카(와하카) 살리나크루스항에 닿을 내렸다. 그간 아이 2명과 어른 1명이 숨지고 아이 1명이 태어나 1천31명이 물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은 곧바로 기차와 배로 이동해 유카탄 프로그레소항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10~25명씩 무리로 나뉘어 메리다의 에네켄 농장에 배치됐다.

농장서 4년 노동 후 디아스포라 생활

에네켄은 날카로운 잎을 가진 선인장의 일종이다. 에네켄은 당시 수요가 많았던 선박용 로프의 재료였다. 한인들은 이르면 오전 4시부터 일몰 때까지, 여름 한낮 기온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 속에서 에네켄 잎을 자르고 섬유질을 벗겨냈다. 얼굴이 검게 타고, 가시에 찔려 손에서 피가 나기 일쑤였다. 임금 체불에 임대주택과 식량도 직접 구입해야 했다는 게 당시 상황을 연구한 역사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황성신문은 1905년 7월 29일자 사설에서 “조각난 떨어진 옷을 걸치고 다 떨어진 짚신을 신는다”, “한국 여인들의 처량한 모습은 가족같이 보이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실정”, “농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도다” 등과 같은 비판 섞인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자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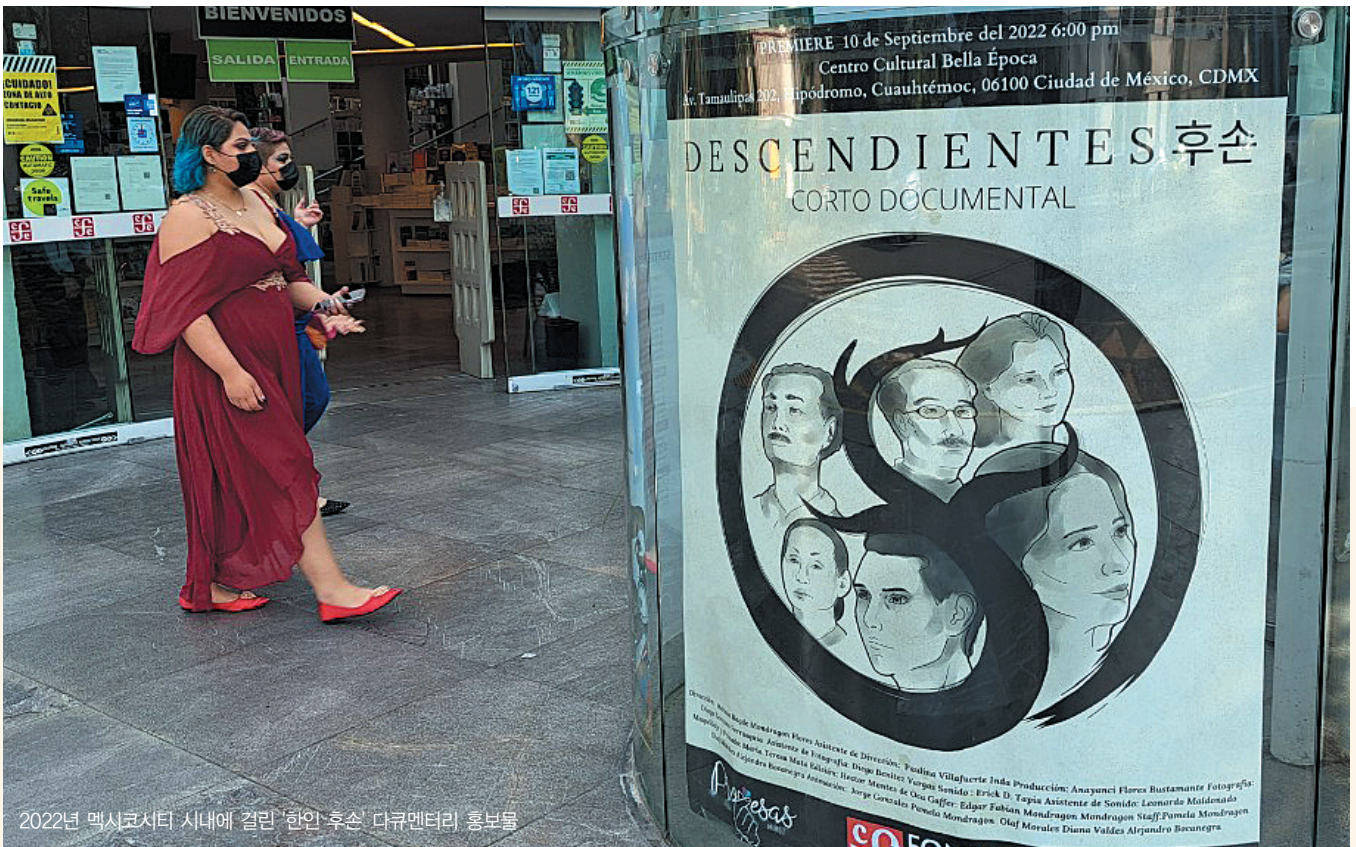
글로 당시 한인들의 처참한 일상을 폭로하기도 했다.

계약 기간 종료 뒤에도 이주민들은 일제 치하에 놓인 고국에 돌아가기 어려웠고, 대부분 멕시코 전역으로 흩어져 정착하는 삶을 택했다. 일부는 멕시코 주민과 결혼하며 현지화했다. 1세대 이주 한인 중 270여명은 1921년 쿠바 사탕수수 농장으로도 넘어갔다. 이들은 현재 아바나와 마탄사스 등지에 사는 한국계 1천100여명의 선조다.

한글학교 건립·독립운동도 지원

멕시코 이주 한인들은 ‘고생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실현하고 정체성 수호를 위해 한글학교를 설립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친 한편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해 모국에 보내기도 했다.

옛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 조사 보고서: 멕시코, 쿠바’를 보면 유카탄반도 한인들은 농장 계약 만료를 앞두고 대한인국민회의 메리다 지방회를 설립해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했다. 무관 양성기관인 숭무학교(崇武學校)를 세워 군인을 양성하기도 했다.



2022년 멕시코시티 시내에 걸린 '한인 후손' 다큐멘터리 홍보물

현재 멕시코에는 이들의 후손 3만여명이 살고 있다. 세대를 거듭하며 외모나 언어는 현지화했으나, 한인후손회를 조직해 활동하거나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며 뿌리를 기억하고 있다.

2022년 '데센디엔테스(Descendientes. 후손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후손'이라는 제목의 23분 분량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멜리사 몬드라곤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손들은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매우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성장했다고 봐야 한다"며 "한인 후손들이 선조의 슬픔을 공유하며 멕시코 내 공동체로 자리 잡은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3·4세 후손 정계·의료계 활약

현재 후손들은 5세대까지 이어졌다고 한인후손회는 전했다. 3·4세 후손 중에는 상원 의원(노라 유)과 주 대법원장(리스베스로이 송)을 지낸 사례도 있다. 후손들은 한국 사회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각종 동포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후손들의 바람을 전달하는 마르타 김 멕시코시티 한인후손회장(전문직)은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고 후손들이 더 단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후손들은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의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분석 자료를 보면 중남미 지역 콘텐츠 시장은 2021년 이후 6년간 연평균 예상 성장률(6.63%)이 전 세계 평균 예상 성장률(5.19%)을 웃돌 것으로 관측됐는데, 특히 멕시코 내 한국 문화 소비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 열풍 타고 현지인 호감도 높아져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올해 한인 이주 120주년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 한편으로는 한인 후손에 대한 전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지에서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있는 유카탄주 메리다를 비롯해 캄페체주 캄페체가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해 기리고 있다. 유카탄주 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날을 '한국의 날'로 기념한다. 2021년에는 멕시코 연방의회가 특정 국가 기념일로는 최초로 '한인 이민자의 날'을 지정했다.

이처럼 멕시코에선 이주 120주년을 맞이한 한국인들의 족적을 기리고,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한 해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이상덕 청장 “입양동포 국내 정착지원은 국가의 책무”

동포청, 입양인 국내 정착지원 첫 정책간담회 개최...전문가·입양동포 60여명 참가



4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입양 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첫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 앞서 이상덕(왼쪽서 6번째)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 세계 20만 입양 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첫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4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부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입양인들의 국내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월 동포청의 ‘입양 동포 전담 상담창구’ 개설 후속 조치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해외입양인연대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이상덕 동포청장을 비롯해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유재훈 해외입양인연대 고문, 국내외 입양 동포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가했다.

이상덕 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간담회는 입양 동포와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첫걸음이어서 의미가 크다”면서 “동포

청은 입양 동포와 정부 간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입양동포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재외동포에 속하고, 입양 동포를 지원하고 정착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족 찾기 사업 ▲재외동포청의 전담 창구 운영 사례 및 입양 동포를 위한 금년도 추진 계획 ▲서대문구청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례 ▲입양동포 커뮤니티 교육센터 운영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제1주제는 아동권리보장원 안준한 부장이 발표했다. 안 부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해외 입양인들이 친가족을 찾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아동권리보장



입양 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첫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원의 주요 사업으로 우선 입양정보공개 청구 제도이다.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신의 입양 기록과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양인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부사업으로 무연고 입양인 DNA 등록절차와 대안적 가족 찾기 절차를 지원한다.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언론·방송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주제는 김채영 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장이 맡았다. 김 과장은 입양인 전담창구 운영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전담창구는 재외동포청이 국내외 입양 동포들의 친부모 등 가족찾기를 비롯해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상담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25일 문을 열었다. 이후 4월24일까지 약 1개월간 총 11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24건은 가족찾기, 9건은 입양기록 열람 및 정보 추가 요청, 그 외 정보공개청구, DNA 등록 등 다양한 민원이 포함됐다. 4월중에는 재외동포 사증(F-4), 자녀의 이중국적 허용 여부 관련 문의가 증가한 점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국내 체류하고 있는 해외입양동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국내 체류 중인 해외 입양동포의 체류 현황 및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오는 11월 서울에서 세계한인입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 세계 90명의 입양동포를 초대해 입양 후 첫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양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연대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이다.

제3주제는 도규리 서울 서대문구청 가족센터 팀장이 '입양인 가

족 국내 정착 지원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서대문구청은 입양인 가족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한국어 교실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식조리사 자격증 과정 등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 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 능력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온 가족 보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개인의 심리상담과 부모양육 상담, 가족캠프와 김장 등 이웃 나눔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제4주제는 독일 입양인인 김 올리버(Kim Oliver)가 '해외입양인 교육커뮤니티센터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그는 해외 입양동포들의 모국 방문과 모국 정착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해외 입양동포 간의 소통과 각종 모국의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해외입양동포를 위한 교육커뮤니티센터가 설립된다면 입양 후 성장과정에서 한국 문화 및 언어가 단절된 이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모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양인의 한국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어, 한국사, 전통문화, 사회제도 등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화된 공간 및 교육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양인 교육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입양인의 정체성 회복 및 모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입양인이 안정적으로 모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4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연수 백석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는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관, 김향은 고신대 교수, 해외 입양 동포인 아만다 조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입양인의 국내 정착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서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국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정 조사관은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미취득한 한인 입양인들을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해 미국에서 추방하겠다는 조치는 미국을 당연히 모국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매우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조사관은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1만9천명에 달하는 이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내외 입양 동포를 위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www.youtube.com/watch?v=fnTvq3D04qw)도 진행했다. 

“우리는 하나다”...한상경제권 실현, 이제 시작입니다”

이경철 총회장이 말하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와 비전

재외동포청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4월 17~20일(현지시간) 공동 개최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역대 최고 행사로 평가받으면서 막을 내렸다. 나흘간 총 6억 6천만달러(한화 약 9천9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K-푸드, K-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4천990만 달러(한화 약 740억 원 규모)의 현장 계약이 체결돼 한류 상품에 대한 미국 현지의 인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한류 인기로 힘입어 K-바이오, K-뷰티, K-푸드 등 분야에 특화해 기업전시회를 마련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등 관세장벽이 높아진 시점에서 대기업에 이어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진출도 본격화됐다는 점도 이번 대회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번 대회를 재외동포청과 함께 공동주최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경철 총회장을 서면으로 만났다.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소감이 궁금합니다.

전 세계의 한상들과 동포경제인, 대한민국의 우수 중소기업들과

각 지자체, 주요 경제단체들이 합심하여 ‘한상경제권으로의 시작’이 된 제 23차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일조를 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의 발전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청과 같이 주최를 하며 국가행사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우리 회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와 관련해 특별히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전시회의 백미는 성과인데, 20일 폐막식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께서 현장 구매계약실적 4천990만달러, 현지공장 계약 4천500만달러, 스타트업 투자계약 1천만달러, 상담금액 6억 6천만달러를 발표하실 때, ‘현장계약이 1억달러가 넘는 역대 최고의 성과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대회가 미국에서 열리니 미국 현지 정부, 경제단체, 기업들과 대한민국의 기업들, 전 세계 한상들이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며 미국현지진출을 하는 직접적인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계약금액도



4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식에서 주요 참가자들이 축하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왼쪽서부터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총회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총회장

잘 나왔지만 G2G, B2G, 스타트업 경연, 투자미팅, 공공조달포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역대 대회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미국 물가가 비싸 한국 내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은 더 들었지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한미동맹강화'를 말씀하시고, 연방 중소기업청장 켈리 뢰플러가 기조연설에서 '한미 공동 동반성장'을 강조했다듯이 이번 대회는 한미 양국의 발전적인 동반 성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16개주에서 오신 미국 정부의 주요 경제관계 인사들과 한국에서 오신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들과 네트워킹하며 양국 동반성장을 약속했습니다. 홈 디포, 코스트코 구매담당자들을 비롯한 많은 미국 현지 기업 바이어들이 왔었고, 한국 내에서 열린 대회와는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참가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가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진출을 위해서는 도전정신과 용기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잘 왔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 고맙다.'는 말씀

을 하시더군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께서 미국시장은 규모가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며 전북소재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링 업체에서 미국 기업과 2천800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6월말까지 납품하는 판매계약을 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2023년 제21차대회 경험으로 이제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 바이어유치위원회에서는 참가기업과 바이어들을 계속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연결하고, 서포트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진행할겁니다.

이번 대회가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번 대회가 참가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 및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던 미국진출사업에 이번 대회는 네트워킹이나 시장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경북 참가업체 한 곳은 한식과 막걸리(하우스 브루어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 대회에서 현지 파트너를 만나게 되어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 스폰서이기도 한 네이처셀은 현지 전국 판매망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여러 방면에서 이번 대회가 사업적으로 어떤 계기, 촉매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과는 계속 될 것입니다.

미국 경제 변화 속 미주 한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자국우선주의, 고율 관세 부과, 공급망 불안정, 소비자 심리 위축, 금융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총연합회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 네트워크 지원, 한국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수립 지원 등의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기업인들과 차세대 경제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뿌리를 잊지 말고 한미 양국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이번 제23차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재외동포청과 함께 주최하며 느낀 것은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서 국익과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 재외동포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민족 인재 키우는 데 혼신 다할 것”

세계 속 한상, 미래 한민족 키운다...글로벌한상드림의 새 비전



김점배 글로벌 한상드림 제3대 이사장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 차세대에게 꿈을 심고 미래를 여는 공익법인, (사)글로벌한상드림이 새로운 리더를 맞이했다.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점배(68) 알카오스트레이딩(오만 법인)·(주)천관(국내 법인) 대표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무대로 성공적인 한상(韓商)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글로벌한상드림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전 세계한상대회)에 참여하는 동포사회 리딩CEO들이 참여해 지난 2016년에 설립했다. 한상의 전통과 비전을 유산으로 승화하고 모든 한민족이 꿈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전 세계에서 활약할 차세대 동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아중동한상총연합회장, 오만한인회장,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 부의장, 제20차 세계한상대회장, 한상 리딩CEO, 글로벌한상드림 부이사장 등을 역임한 아프리카 오만의 대표 한상이다. 그는 인도양을 무대로 원양어업과 수산물 가

공·선박관리업을 주요 사업으로 펼치며 한인 기업들의 현지 정착도 돕고 있다. 또 아프리카 오지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평화의 샘물’ 사업도 꾸준히 펼치며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전임 정영수 이사장의 뒤를 이어, 장학사업과 인재 육성을 더욱 본격화하며 한상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잇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을 서면으로 만나 취임 소감과 향후 비전을 들어봤다.

“한상 정신, 이제는 차세대에게 물려줄 때”

“정영수 이사장님께서 만들어오신 송고한 기반 위에 저의 책임과 비전을 더해 가겠습니다. 글로벌한상드림은 단순한 장학재단이 아니라, 도전정신과 민족사랑이라는 한상의 철학을 실천하는 조직입니다.”

김점배 이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책임’과 ‘계승’을 강조했다. 자신이 한상으로 걸어온 길이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공동체와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다.

그는 인도양과 아프리카 대륙을 무대로 원양어업과 수산물 가공, 선박관리업 등을 운영하며 ‘알 카오스 트레이딩’을 이끌어왔다. 현지 사회에 뿌리내리는 한국 기업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프리카 오지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평화의 샘물’ 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민간 외교관이기도 하다.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상일수록 더 강한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드림서포터즈와 장학사업에 역점

김 이사장은 글로벌한상드림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드림서포터즈’와 ‘한상드림 장학생’ 제도를 꼽았다.

‘드림서포터즈’는 청년들이 최대 10년간 매년 500만 원의 ‘꿈 지원금’을 받으며 한상 CEO와의 멘토링, 독서토론, 네트워킹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한상의 정신과 경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지난해 12월 17일(현지시간) 말라위 릴롱게 시치초등학교에서 열린 '평화의 샘물' 전달식 및 나무 심기 기념행사에서 기념 촬영 하고 있다.

“글로벌한상드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청년의 눈빛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롭고 막막했던 이민 1세대처럼, 우리 차세대도 무수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면, 청년들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또한 한상드림 장학생 사업은 재외동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지원 프로그램으로, 2022년 시작 이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장학 사업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장학생들이 선순환 구조로 다시 재단의 후원자 혹은 멘토가 되는 ‘드림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민족의 정체성과 연대의 힘을 전 세계에”

김점배 이사장의 비전은 명확하다. “글로벌한상드림은 단지 장학금을 주는 곳이 아니라, 한민족의 유산을 함께 지켜가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장직을 맡는 동안 세 가지 방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는 한민족 정체성 교육 강화다. 김 이사장은 “세계 곳곳의 동포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한민족이라 자각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는 글로벌 멘토링 플랫폼 구축이다. 그는 “전 세계 한상 CEO들이 각국의 청년들과 직접 연결되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 했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기부문화다. 김 이사장은 “장학재단은 기부자의 사랑과 연대가 없으면 존속할 수 없다”며 “더 많은 한상들이 이 선순환 구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인생의 마지막 도전, 청년들과 함께 할 것”

김 이사장은 이번 이사장 취임을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 표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폐회식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가운데)이 대회 공동 의장인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오른쪽)과 나인줄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현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으로 기업을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후배들이, 우리 차세대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다시 공동체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지 국내에 있는 청년들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지구촌 곳곳의 한민족 청년들이 스스로를 민족의 일원이라 자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진짜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장, 베트남서 동포정책 강연...한인 소상공인도 격려

세계한인총연합회 주최 세미나 참석...한인타운도 방문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은 지난 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세계한인총연합회(세한총연) 대륙별 한인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청장은 2일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주제로 현재 동포청의 핵심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이스라엘, 중국, 아일랜드, 인도 등 주요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1일 개막한 이 행사는 동포청 후원으로 세한총연이 해외에서 처음 개최한 한인회 역량 강화 세미나다. 베트남 주요 동포 단체장을 비롯해 재일민단, 아시아, 미주, 유럽, 캐나다, 대양주, 중남미 등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장들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지난 1일 진행된 개회식에서 "전 세계 한인사회는 3~4세대까지 빠르게 세대교체가 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 지역한인회의 자생력과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



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세계한인총연합회 대륙별 한인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왼쪽서 5번째)이 세한총연 대륙별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장은 하노이 한인타운인 미딩 지역을 방문해 동포 소상공인의 현장을 둘러보고 현안을 청취했다.

동포청, 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 인천에 대회 깃발 전달

이상덕 청장·유정복 시장, 22일 전달식서 대회 성공 개최 결의 다져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2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부영타워 30층 소재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내년 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 대회 상징인 '한상기' (韓商旗)를 전달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대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2026년도 대회 개최지를 인천광역시로 의결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가한 이상덕 청장과 유정복 시장은 2026년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인천 유치에 축하하고,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도 다졌다. 또 한상기 전달을 계기로 두 기관이 향후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22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이상덕(오른쪽) 청장이 유정복 인천광역시시장에게 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깃발을 전달하고 있다.

한 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동포청-상지대, 글로벌 인재 유치·동포 정착 지원 MOU

저출생·고령화 극복 위해 동포 취·창업 교육과 연구 협력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지대(총장 성경룡)와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와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8일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교육, 연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해외 동포 인재 유치와 국내 정착 지원에 긴밀히 협력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외동포 교육 프로그램, 연구 프로젝트 및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재외동포 대상 창업·취업·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재외동포 관련 콘퍼런스, 행사 등의 공동 개최 등이다.

상지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상덕 청장은 “해외에 700만명, 국내에는 100만명이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역량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지방 주요 거점 지역에 소재한 상지대와 재외동포 분야에서 교류하며 협력하는 일은 더 큰 시너지

이상덕 청장(오른쪽)이 성경룡 상지대 총장과 MOU를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지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청과 함께 국내외 인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국내 체류 중국동포와 함께 배식 봉사활동 진행

김호림 전국동포총연합회장 등 중국 동포 20명 참여... ‘토마스의 집’ 서

재외동포청과 국내 체류 중국 동포 20명(전국동포총연합회 소속)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토마스의 집에서 공동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1993년 설립된 토마스의 집은 노숙자, 독거노인 등 하루 평균 약 350명을 대상으로 중식 제공하고 있다.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과 중국동포들은 영등포구 거주 노숙자, 독거노인 등 약 350명을 대상으로 음식 배식, 설거지 등을 진행했다.

이기성 국장은 “중국동포와 함께 지역사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동 배식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국



내 동포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사에 참여한 전국동포총연합회 김호림 회장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지역사회와 동포사회가 하나가 되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이 행사에 앞서 중국동포와의 공동 헌혈 행사, 인천 연수구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내 체류 동포들과 함께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연중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서포터즈 ‘동포유’ 출범

재외동포와 동포청 위한 ‘청년 크리에이터’ 희망하는 14명 선발 · 위촉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서포터즈 ‘동포유’가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포터즈 명칭 ‘동포유’는 전 세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연결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포유’ 서포터즈는 청년의 시각에서 직접 만든 영상, 사진, 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외동포청의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1기 서포터즈로 국내 12명 및 아랍에미리트(UAE)와 독일에 체류 중인 청년 1명씩 총 14명을 선발해 위촉했다. 이들은 5월부터 12월까지 SNS 채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 관련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발대식에서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감각, 열정, 그리고 시선으로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에 대



21일 제1기 재외동포청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축하하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한 이야기를 풀어내주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동포청은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포청,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15회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이기성 국장 개막식서 “중국동포사회 지속된 단합과 지역사회 기여” 기대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18일 서울시 구로구 안양천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5회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총회장 김세광) 주최로 11개 산하단체 회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개최된만큼, 대회에 참석한 중국동포들은 대회 시작에 앞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분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18일 ‘제15회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축하하고 있는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

2025년 1월 취임한 김세광 신임 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마음체육대회가 15회를 맞이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중국동포사회의 단합과 권익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말했다.

이기성 국장은 축사를 통해 “15회째 대회를 이어오며 보여준 중국동포사회의 단합과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런 힘

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재외동포청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뿌리를 향한 귀환, 문화를 통한 미래...동포 연대의 길

“조국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기억이고, 뿌리이며, 마음이다.”

100여 년 전,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리 조상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렸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자식들 만큼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놓지 않았다.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에게는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배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사회 속에서 역할을 찾아 나섰다.

그 희생의 결과로, 고려인은 세대가 흘러도 어느 나라에서든 교육을 통한 성장과 책임감 있는 시민 의식으로 인정받았다. 지금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CIS 국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교육 수준 상위권을 기록하며 각국에서 신뢰받는 구성원이자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고, 민족의 명예를 지켜냈다.

그러나 조국이라 불리는 이 땅에서는, 그 성취가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1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기꺼이 조국을 향해 귀환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언어 장벽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설명할 수는 없다.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 생활 규칙의 낯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심지어는 미묘한 차별적 시선까지.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려인들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한국어 교육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적응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단지 언어를 익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 사회 규범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정체성과



채예진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KGN) 이사장

공동체 의식을 함께 다루는 통합적 교육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KGN은 단순한 동포 지원 단체를 넘어선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고려인의 정착을 돕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에 자긍심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 역사·문화 체험, 생활 적응 프로그램, 청소년 장학 사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장벽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자 제도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H-2 혹은 F-4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 체류하고 있지만, 이 두 비자 간에는 권리와 제약, 체류 안정성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H-2 비자의 경우 단

순 노동직에 제한되며 직종과 체류 자격에 대한 많은 제약으로 인해 많은 고려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국적, 학력,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고려인들이 통합된 동포 비자 체계 안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단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포를 대하는 태도와 철학의 문제이다.

정착은 단지 이민 정책이 아니다. 정착은 소속감을 만드는 일이다.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KGN은 바로 그 정착의 본질을 지켜내고자 하며 동포들을 단순히 돕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할 동반자로 바라본다. 고려인이 이 땅에서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작은 씨앗 하나가 뿌리를 내려 큰 나무가 되듯, 오늘 우리가 심는 이해와 연대의 씨앗은 머지않아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는, 분명 고려인과 대한민국이 함께 키워낸 또 하나의 희망이 될 것이다.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8일: 재외동포청-상지대학교 업무협약식(원주)
- 13일: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오사카)
- 15일: 프랑스 주요 동포단체장 초청 간담회(파리)
- 16일: 유럽한글학교협의회 연수 개최식(파리)
프랑스 입양동포 초청 오찬간담회(파리)
- 17일: 파독 근로자 및 독일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센)
- 18일: 베를린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베를린)
- 21일: 재외동포청 서포터즈 '동포유' 발대식
(재외동포웰컴센터)
- 22일: 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 인천에 대회 깃발 전달식(재외동포웰컴센터)

2025년 5월 재외동포청장 동정

- 1일: 세계한인총연합회 대륙별 한인회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식
(하노이)
재외동포청장 주최 만찬
- 2일: 세계한인총연합회장 주최 만찬(하노이)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과 해외 주요국 사례 관련 강연
회(하노이)
- 8일: 재외동포청-상지대학교 업무협약식(원주)
- 9일: 정경옥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장 면담(재외동포청)
- 12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한일우호친선모임' (오사카)
- 13일: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오사카)
- 15일: 프랑스 주요 동포단체장 초청 간담회(파리)
- 16일: 유럽한글학교협의회 연수 개최식(파리)
프랑스 입양동포 초청 오찬간담회(파리)
- 17일: 파독 근로자 및 독일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센)
- 18일: 베를린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베를린)
- 22일: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면담(재외동포웰컴센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 인천에 대회 깃발 전달식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공지

2025년 제1기 한국어 특별강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재외동포웰컴센터, 한국어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전 강좌 무료 제공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언어·문화 교육이 오는 여름 인천에서 펼쳐진다.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웰컴센터는 2025년 제1기 한국어 특별강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수강생을 5월 2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강좌당 정원은 약 15명 내외로 제한된다.

교육 및 체험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특별강좌는 6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6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 하루, '한지 무선 조영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된다.

모든 수업은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웰컴센터(부영송도타워



2025년 제1기 한국어 특별강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포스터

30층)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리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수업 등록은 온라인 신청(구글폼)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링크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특별강좌 신청: <https://m.site.naver.com/1HQLP>. ▲문화·체험 프로그램 신청: <https://m.site.naver.com/1HQNM>.

신청 마감은 한국어 특별강좌는 6월 11일,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6월 4일까지다.

재외동포웰컴센터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동포들이 언어와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익히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재외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재외동포협력과(032-440-1567~9)로 하면 된다.

먼저 만나면 더 좋을거야

노후준비 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비스영역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제공서비스

노후준비 진단 · 상담 · 종합재무설계 ·
교육 · 관계기관 연계

제공방법

국민연금 40개 거점지사 전문상담사 ·
강사가 무료로 제공



방문, 전화,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하세요!

<http://csa.nps.or.kr>

더 큰 대한민국, 재외동포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2주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유튜브



재외동포청 인스타그램